



연기자 홍종현은 "지난 시간 불완전했던 것들이 최근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17일 영화 '다시, 봄'을 내놓는 그는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로 주말마다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 | 스마일엔터테인먼트

영화 '다시, 봄'으로 스크린 나들이 홍종현

'아들 자랑' 하는 부모님 주말극 효과 체감 중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오랜만의 영화...무대인사 때 가장 떨려 데뷔 11년...내게도 다시 봄이 오나 봐요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동안 미처 몰랐던 매력을 알아가기도 한다. 연기자 홍종현(29)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 시간 남짓 대화하면서 그의 진면목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낯카로운 인상" 때문에 차가운 것 같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17일 영화 '다시, 봄'을 내놓는 그는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도 출연 중이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동시에 대중과 만나며 데뷔 11년째인 지금,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는 그를 10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벌써 11년, 앞으로 더 즐길 수 있는 자신감 생겨'

홍종현은 데뷔 당시만 해도 연기자로 살아갈 날들에 확신이 없었다. 과연 언제까지 즐기면서 이 직업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시련이 찾아왔고 고민은 끊이지 않았다.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 10년이 훌쩍 흘렀다.

"지금은 홍종현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점차 확립되고 있다. 불완전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연기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운 시간이었고 이제 30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바람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4년 만에 주연을 맡은 영화 '다시, 봄'과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통해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 "영화 제목처럼 저에게도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다시, 봄'은 특정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타임 루프 설정의 영화다. 딸을 잃은 여성(이정아)이 하루씩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을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홍종현은 시간이 전날로 되돌아가는 이유에 대한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인물로 맡았다. 이번 영화에서 20대 청춘답게 패기 넘치는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 극중 유도 전 공의 체대생 캐릭터로 수준급의 유도 실력으로 공경한다.

"오랜만의 영화여서 무대인사 당시 관객 앞에 섰을 때 가장 긴장됐다. 지난해 촬영을 마쳐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시상회에서 보고 당시 작업했던 순간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스태프들과의 호흡과 끈끈했던 단결력 등이 스쳐 지나갔다."

홍종현은 최근 "하루에 한번 정도씩" 부모 세대의 시청자와 실제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 했다. 주말드라마의 힘이다. "3살 많은 누나로부터는 부모님이 지인들에

게 아들 자랑하는 이야기도 전해 듣는다"고 했다. "주말극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그는 "내가 주말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알 것 같다"며 웃었다. 지금까지 즐기면서 살아갈 10년을 기대하는 홍종현은 "그동안 쌓은 경험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좀 더 여유 있게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겨 이 직업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강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홍종현은 스마트폰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가족들과 시간을 공유한다.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바쁜 탓에 부모, 누나, 매형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렇게 달래고 있다. 최근엔 3살인 조카의 사진을 보는 낙이 가장 크다.

"지나가다 벚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점심 메뉴나 날씨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다. 함께 지낼 때와는 또 다른 가족애를 느낀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 않나. 누구보다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서로의 소통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면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목욕탕에 같이 가기도 했고 아버지와 기억이 많아 내 아들에게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카를 보면서 딸이 너무 예쁘다"며 웃는다.

미래 이야기에 신이 난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잠깐 속스러워하다가 말을 이어간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주셨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것을 즐기라고 하셨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분명 얻는 게 있을 거라고. 덕분에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홍종현에게 연기와 가족을 제외하면 친구들과 그 자신이 남는다. 고등학교 동창,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2년 전 부산에서 배에 오도바이를 싣고 일주일간 떠난 일본 여행은 "열 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히는" 추억이다. 올해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목공 매력을 푹 빠졌다. 직접 목재를 주문해 작업실에서 깎고 다듬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나무도마를 선물하기도 했다.

"집중하다보니 잠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다. 성격상 호기심이 많아 일단 도전해보고, 나와 맞으면 쪽이 어간다. 관심이 생기면 뭐가 됐든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 관심은 이성과의 사랑으로도 이어지지만 취미처럼 도전할 순 없다. "연애도 하고 싶는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웃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홍종현

▲1990년 2월2일생 ▲국제사이버대 엔터테인먼트학과 4학년 재학 중 ▲2007년 모델 데뷔 ▲2008년 영화 '연인들'로 연기 데뷔 ▲2009년 드라마 '맨땅에 헤딩' 이후 '정글피쉬2' '무사 백동수' '전우치' '마미' 등 ▲영화 '쌍화점' '위험한 상견례2' '엘리스 :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2016년 춘사영화상 특별인기상 ▲2016년 SBS 연기대상 판타지드라마 부문 우수연기상(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2017년 MBC 연기대상 월화극부문 우수연기상(왕은 사랑한다)

김규리·조재운 톱스타들 자원봉사까지 나섰다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선행 릴레이

닷새 만에 30억...스타들 기부행렬 일본 엑스재팬 요시키도 1억 성금

'성금으로, 자원봉사로...'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스타들의 운정도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로 마음을 보태거나 작은 손길이라도 힘이 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에 발 벗고 나선 이들도 있다.

연기자 김규리, 하재숙, 조재운, 방송

인 레이양 등이 각각 9일과 10일 강원도 고성군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마음이 내내 무거웠다. 혹시 제 작은 손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무작정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구호 물품을 정리하거나 음식 준비, 설거지, 세탁 등을 도우며 이주민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는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이들을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연예인들의 잇단 자원봉사가 계기가 돼 모두 100만 명

이 넘는 시민 자원봉사자 행렬이 이어졌다.

연예스타들은 이번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아가 선행과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다.

10일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연기자 장근석, 추자현, 가수 아이비,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갯세븐, 방송인 안선영, 조우종·정다은 전 KBS 아나운서 부부 등이 이날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기부했다.

연예인들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5일부



김규리

요시키

터 피해 이주민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잇달아 보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114명, 24억여 원의 연예인 성금을 모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해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치ildren 등 각 기관이 모금한 기부액을 합치면 130여 명, 총 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MBC '무한도전'의 출연진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익명으로 2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손길을 내밀었다. 유재석, 정형돈, 박명수, 황광희 등 '무한도전' 멤버들은 각각 마음을 보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었다.

시선을 끄는 기부자는 또 있다. 일본의 룩그룹 엑스재팬의 리더 요시키가 피해 지역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1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요시키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비영리 공익 법인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배우 이병헌과 친분이 있는 요시키는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에 나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